



보도자료

일시: 2024.3.20(수) 16:00

담당: 010-4660-1409(사무국장)

경주환경운동연합, ‘기후 식목일’ 행사 개최

- 빨라진 봄을 체감하며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필요성 공감하는 시간
- 경주시의 인식 변화 필요, 황성공원 소나무 무리한 가지치기 원성 높임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오후 2시 동천동 오늘은책방에서 기후식목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0여 명의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공감하며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빨라진 봄, 이제 4월 5일은 나무가 뿌리 내리기 힘든 날입니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식목일을 2주 앞당겨 3월 20일 ‘기후식목일’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후식목일’을 통해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탄소중립 사회의 필요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숲이라는 세계’의 저자인 최진우 박사의 ‘기후위기와 숲’ 강연을 90분간 함께하고, 강연장 앞에 마련된 화단에 조팝나무, 병아리꽃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수했습니다.

최진우 박사는 1948년 식목일을 처음 지정할 때는 산림이 황폐해서 온 국민이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 식목일을 지정했으나, 지금은 산림이 울창해서 나무를 심을 곳이 마땅치않다고 하면서 식목일의 의미를 이미 있는 숲을 잘 가꾸는 날로 인식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돌려 도심의 가로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나무 권리를 위한 시민의 약속 선언문’을 소개하며 나무도 고통을 느낀다면 가로수를 잘 보호하고 가꾸자고 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그 지역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면서 함부로 가지치기를 해 소위 ‘닭다리 나무’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주시는 황성공원의 소나무를 무리하게 가지치기 해서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근린공원의 나무와 가로수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경주시의 행정 변화를 바랍니다.

*사진 자료: <https://kj.ekfem.or.kr/post/15011/>